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국가인권위원회) 「우리 학교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 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배부한 안내서 요약본입니다.

무엇이 혐오표현인가요?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또는 ②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 모욕감을 주는 표현(모욕형 혐오표현)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표현”

- 성별-김치녀, 성괴 등
- 나이-급식충, 툇딱충 등
- 인종이나 출신국가-짱개, 똥남아, 흑형, 다문화 등
- 종교-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
- 장애-병신새끼 등
- 성적지향-게이냐?, 호모새끼, 게이/레즈 같다 등
- 【학교사례】
 - (수업 중)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
 - (조회시간)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주노동자들이랑 같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 (화장한 학생에게) 너 가부키냐?

💡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선동형 혐오표현)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은 그 특성상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학교, SNS 등 일상에서 누군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을 한다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스스로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으며 자존감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차별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며 누가 혐오표현을 할지 몰라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이 넘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이 퍼진다면 차별의식은 더 견고해지고 혐오표현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는 더욱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굴레는 더 강화됩니다.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에 따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혐오표현은 폭력이지 차별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배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며,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라,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등의 표현은 이주민, 장애인 등을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한 것입니다.

혐오표현 대응 실천행동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존재에 자부심을 갖고 안전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 배우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 학부모)은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을 그리고 혐오표현의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 살피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 학부모)은 특정한 학생이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학교생활에서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였는지 살피겠습니다.

✓ 알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 학부모)은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구성원을 지지하며 공동체가 함께 해결을 위해 성찰하겠습니다.

✓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직원, 학부모)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고 차별을 악화시키는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어이해】 소수자

소수자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상, 인종, 출신국가, 국적, 성적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흔히, 소수자는 그 국가 혹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다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 소수자’, 그렇지 않은 ‘절대적 소수자’가 있으며 숫자와 무관한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집단이 그가 속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